

•+• 2024 •+•

믿음의 가정이 함께 드리는

설가정에배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도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559장) ... **다 같이**
기도 **가족중에서**
성경봉독 시편 73편 17절, 28절 **가족이함께**

7: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7: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 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인 도 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입니다.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친척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기대함과 설렘으로 어린 시절 설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 육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제주에서 올라가는 번거로움과 시간과 비용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방문객’이라는 시를 쓴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 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만남은 실로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만남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웃고 만남으로 눈물을 담고 있는 비밀 상자인지도 모릅니다. 설 명절이 분명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과 경제적인 부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꼽아 기다리던 설 명절이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름답고 기쁜 만남으로 남을 수 있는 성경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의 지혜서로 불리는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4:8)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73편의 결론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 73:28)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1절에서 16절까지 그가 만난 악인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신앙을 포기할 뻔한 실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시73:17)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성전에서 그는 악인들의 결말을 알았고 만남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18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의 결말이 파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아삽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 가족과 행복한 만남을 만드는 지혜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되고 영원의 관점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빌2:5)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는 마음(빌2:3)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는 모든 자의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 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다 같 이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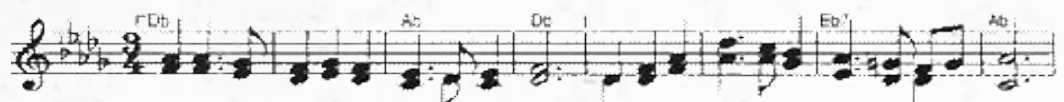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가친척을 위해, 남북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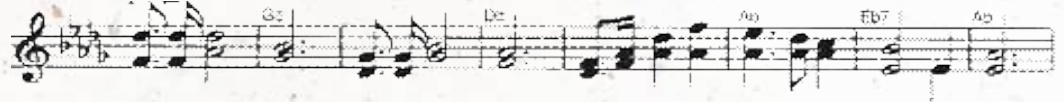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 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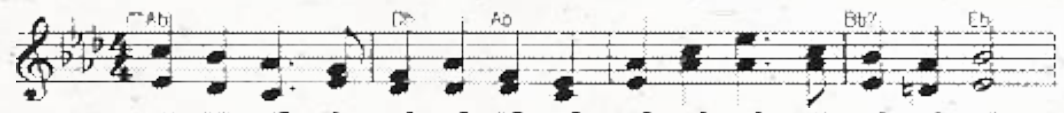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수만 섬가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1. 구 주 예 수 의 지 함 이 심 히 기 뵈는 일 일 세 세
 2. 구 주 예 수 의 의 지 함 이 심 심 히 기 뵈는 일 일 세 세
 3. 구 주 예 수 의 의 지 하 여 심 심 죄 악 한 기 뵈는 일 일 세 세
 4. 구 주 예 수 의 의 지 하 여 구 원 함 을 얻 어 버린 일 일 세 세



영 생 희 락 받 았 으 니 의 심 야 주 없 도 다
 주 안 위 받 는 고 나 의 그 의 피 에 도 네
 영 원 무 공 지 생 나 주 주 께 하 소
 후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 멘

